

## 대항강 생태탐방길

### ■ 코스 지도

문화재와 역사를 고루 품은 드라이브 명소



### ■ 관광자원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압록유원지	두물머리와 강감찬 장군	유원시설
2	북소남시터	북소의 유래	생태
3	태안사	태안사와 숲길	문화재
4	태안사 경찰총훈탑	48명의 전사들	문화재
5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민중시인 조태일	문학관
6	섬진강문화학교	남도 사진관	전시관
7	신승겸 장군태생지	용산재와 신승겸 장군	체험
8	낙죽장도	선비들의 호신용 칼	문화재
9	대항강자연휴식공원	휴식공원과 석쇠구이	휴식시설

## 1. 압록유원지

지금부터 여행할 곳은 문화재와 역사를 고루 품은 드라이브 명소, 대항강 탐방길입니다. 대항강은 옛날 명칭으로 요즘은 보성강이라 주로 불리는데요 은빛 강물과 아름드리나무, 그리고 기암괴석 등이 만들어 낸 자연 풍광에 철철이 찾아오는 철새들까지!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소가 가득하답니다. 우선 압록유원지부터 둘러볼까요?

압록은 보성강과 섬진강의 두 물이 만나는 곳 즉, '두물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성강과 섬진강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성강이 물살이 센 반면, 섬진강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성강을 남성의 강, 섬진강을 여성의 강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대항강이라는 이름도 '물이 거칠게 흐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압록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합류해서 '합록'이라 부르다가 바위 이끼만 먹고 사는 은어, 물고기가 많아 오리와 철새들이 날아드는 것을 보고 '합'을 오리를 뜻하는 '압'으로 대신하여 압록이라 개칭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3만 여 평의 넓은 백사장 등 지리적 여건이 훌륭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유원지이기도 합니다.

압록강변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강변과 달리 모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 유래를 찾아보면 강감찬 장군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을 지나다 하룻밤 묵었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소리로 모기에게 호통을 쳐서 모기들이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는 얘이지만 어쨌든 모기가 없는 압록강변. 캠핑을 하기에는 너무 좋겠죠? 아! 그리고 이곳에 오셨으면 압록역도 한 번 둘러보세요. 지금은 기차도 서지 않는 텅 빈 역이지만 푸른 소나무가 반겨줄 겁니다. 이 소나무는 탤런트 '김영애 소나무'라고 하는데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태수, 최민수씨의 어머니로 연기했던 김영애씨와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요. 빨치산 남편의 뼈를 지리산 자락에 뿌리고 와 이 소나무 옆에 앉아 있다가 기차에 뛰어드는 장면이었죠. 그 때 허공을 가르던 김영애씨의 스카프는 오히려 소리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표현 돼 깊은 여운을 남겼지요. 그 장면에 함께 했던 김영애 소나무는 여전히 푸른빛을 머금고, 역할이 사라진 기차역의 애잔함을 대신 표현해 주고 있네요.

## 2. 북소 낚시터

세월을 낚는다는 강태공이라면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실 거예요.

바로 보성강 하류에 있는 '북소 낚시터'입니다

이곳은 예부터 참게와 잉어가 많이 잡혀서 강태공들이 참 많이 몰렸는데요

지금은 섬진강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서 참게와 은어는 쉽게 잡을 수 없고 대신 대사리 잡는 재미가 좋다고 하네요.

대사리는 일종의 다슬기인데요 섬진강의 다슬기가 유명하듯 보성강도 다슬기 종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낚시터의 이름 '북소'는 어느 스님이 배에 북을 싣고 가다가 빠지는 바람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강은 도로변에 가까운 물가는 바윗돌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수심이 얕트막하지만 건너편 대나무 숲 근처는 8미터에 이를 만큼 수심이 아주 깊고 물이 휘감아 돌아나가는 지역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곳 대숲은 강바람이 시원한 소리까지 내고 있어 여행객들에게는 은은한 자연의 소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이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코스로 아주 유명한데요, 압록유원지에서부터 보성강 줄기를 타고 석곡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18번 도로는 아주 인기가 높죠.

양 쪽 길가에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어 봄이면 꽃놀이,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 3. 태안사

울창한 수림 안에서 마음을 들여다 보는 곳, 바로 동리산에 자리한 태안사입니다.

선종은 참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 하는 종파로 태안사는 우리나라 선종이 열린 아홉 개 사찰 중 한 곳 즉, 구산선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효령대군이 머물고 갔을 정도로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이름모를 3명의 신비로운 승려들에 의해 창건된 후 1200년 동안 법등이 꺼지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태안사는 수행공간의 규모가 많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궁극적의 목표인 수행공간으로서 명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국사인 적인선사 혜철스님을 배출한 태안사는 바위 위에 위치한 암자인 능파각, 경내 연못에 그림처럼 서있는 삼층석탑등 지방문화재와 광자대사탑, 청동 대바라, 태안사 동종 등 다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중에서는 ‘적인선사탑’은 적인선사 혜철스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반드시 보고 가야할 유물입니다.

탑의 전체적인 형태는 무겁지만 너그러운 품위를 지녔고, 각 부분의 조각은 매우 자세하게 새겨져있어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이르러 양식상 석탑을 비롯해 돌로 만든 조형물들이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였으나, 이 탑은 매우 뛰어난 조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태안사는 사찰 보다는 숲길이 아름다운 곳으로 더욱 유명하답니다.

이곳의 숲길은 포장돼 있지 않은, 흙과 자갈이 간간히 섞인 아주 자연스런 길이죠.

그래서 걷기여행을 떠난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길 옆 작은 계곡은 길동무를 해주고,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계곡과 녹음, 가을은 단풍까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그 무엇보다 자연을 느끼게 하니 산책하기에는 일품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곳이 이 곳 태안사입니다.

자,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태안사로 들어가 볼까요?

## 4. 태안사 경찰총흔탑

경찰과 사찰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안사가 간직한 아픈 사연을 듣고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사찰내에 있는 경찰총흔탑이죠.

이곳의 경찰총흔탑을 설명하려면 압록 경찰승전탑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서울과 경상도 일대가 북한군에게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태안사 보제루에 작전소를 설치하고 유격전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29일, 북한군이 하동을 지나 남원으로 향한다는 첩보를 입수 해 그 길가인 압록교 인근에서 매복하고 전투 대세를 갖추고 기다리죠.

그리고 마침내 북한군이 다가 오자 그들을 선제 공격해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는 한국전쟁당시 당시 대한민국 경찰이 최초로 거둔 승리이자 북한군의 진격을 1주일정도 늦추어 국군이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일주일 후 엄청난 비극이 다가옵니다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만에 북한군이 태안사 경찰 작전소를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갑작스런 공격에 방어조차 제대로 할 수 없던 경찰은 48명의 전사하고 나머지 대원은 뿔뿔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 10년, 전투에 참여했던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합동위령제를 지내게 되었고, 1985년 참전동지들의 성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경찰 총흔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해 참사가 있던 8월 6일에는 전사 경찰관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 5.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이제 한숨 돌리며 들를 곳은 '국토'라는 시로 유명한 곡성출신 시인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입니다.

*“풀씨, 조태일...*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햇볕 하염없이 뛰노는 언덕뺨기면 어떨고,*

*소나기 쓴살같이 꽃히는 시냇가면 어찌리.*

*온갖 짐승 제멋대로 뛰노는 산속이면 어떨고*

*노오란 미꾸라지 꾸물대는 진흙 받이면 어찌리.*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출 곳 없어 언제까지나 떠다니는 길목,*

*그곳이면 어찌리,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조태일 시인의 '풀잎'이라는 시입니다.

시 전문잡지 '시인'을 창간하고 광주대학교 예술대학장을 지낸 조태일 시인은 현실의식이 강한 시를 주로 쓴 대표적인 민중시인입니다

전남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각각 신춘문예에 당선 된 시인은 유신정권이 득세하던 1960년대 말, 월간 시전문지를 창간했지만 제도적인 폭력에 맞서는 시의 성향 때문에 당국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뜻있는 문인들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쟁취를 위해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문인협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지만 결국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학자와 시인의 길을 걷고, 95년에는 일곱 번 째 시집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1999년 병을 얻어 그만 작고하고 말았습니다.

“의자”라는 시로 유명한 조병화 시인의 제자였지만 스승과 정치적으로 대립된 길을 걸었던 민중시인 '조태일'

대나무 '죽'자를 쓴 '죽형'이라는 호에서처럼 항상 민중에 대한 사랑이 울곧았던 조태일 시인의 흔적이 이곳 시문학기념관에 남아있습니다.

## 6. 섬진강 문화학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전라도 예찬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많아서겠죠

그런데 이곳에 오시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방방곡곡, 저 멀리 독도의 모습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섬진강 문화학교에서 말이죠. 일명 ‘남도 사진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40여 년 동안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김종권 작가가 세운 공간입니다.

김종권 작가가 찍은 한국의 산과 들, 남도의 문화유적 등의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총 600여 장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감사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이곳 보성강과 섬진강을 테마로 한 작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섬진강 문화학교의 교장이신 김종권 작가님에게 직접 이곳을 소개 받아볼까요?

*젊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여행지나 등산코스를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잠시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섬 사진을 찍게 됐고 그때부터 독도를 찍는 일에 깊이 빠져서 지금까지 독도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전라도 중에서도 여기 곡성의 섬진강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폐교에 사람이 관심을 갖게끔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였었는데 매일 학교를 가꿔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전시관 하나까 좀 생소하고 게다가 독도 전시관이라는 곳이 좀 썩똥 맞은곳에 있으니 여기를 알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계절 내내 학생들이 찾아 오기도 하고 저와 같은 사진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네요.*

*겨울철이면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역으로 나가서 독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 조태일 시인도 애정을 쏟았던 ‘섬진강 문화학교’

그곳의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 7. 신승겸 장군 탄생지

곡성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면 신승겸 장군을 빼놓을 수 없죠?!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개국한 인물로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의 목숨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체구가 장대하고 용감무쌍한데다 지략까지 뛰어나 무인으로서 흔치않게 사원까지 지어진 인물이죠.

바로 그 인물이 태어난 생가 터를 중심으로는 '용산재'라는 문화유적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에는 신장군의 후손들이 2004년 건립한 장군의 동상도 있답니다.

신승겸 장군에게는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 활쏘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명하죠.

**왕건** 오호!! 저기 기러기 세 마리가 날아가는구나!!

내 여기서 우리 장수들의 활 쏘는 실력을 좀 보고 싶은데,

누가 나서서 저 기러기를 쏘아보겠는가?

**무인들** (궁시령) 저걸 어떻게 해 쏘라는 거야? / 그러게 말일세..(등등)

**신승겸**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기러기를 쏘아 맞추면 되겠습니까?

**무인들** (궁시령) 뭐야? 그냥 쏘면 되지 어차피 맞지도 않을 텐데...

/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등등)

**왕건** 오호! 그 중 한 마리만 맞춰도 뛰어난 것인데, 그리 자신 있으신가?

**신승겸**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쏘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왕건** 좋소! 음... 가운데 기러기를 맞춰보시오.

**신승겸** 예, 그렇게 하지요.

(효과 시위를 당기는 소리 + 활 튀겨 나가는 소리 + 활에 맞고 + 새 떨어지는 소리)

**무인들** (환호성) 대단하군!! (등등)

**왕건** 오호! 놀랍도다!! 가운데 기러기의 좌측 날개를 정확하게 명중시켰구만!

장수의 놀라운 실력에 내 이 곳 땅을 장수에게 하사하겠소!

**신승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황해도 평산의 땅을 하사 받은 신승겸 장군은 거기에 평산 신씨 성을 하사 받아 그 성씨의 시조가 되기도 했죠.

'용산재'가 있는 주변은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린다는 지세를 가지고 있으며 유독 '용'자가 붙어 신승겸 장군과 관련있는 지명이 많습니다.

보성강 한 가운데 있는 '용소'는 신승겸 장군이 먹을 감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고, '용탄'은 그가 목욕을 하던 개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 8. 낙죽장도

조선시대 여인네들의 호신용 칼이 은장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은장도는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했지만 선비들의 호신용 칼은 따로 있습니다

‘낙죽장도’라는 칼인데 호신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칼입니다.

칼로 대나무 칼집에 깨알 같은 글씨와 그림을 인두로 새겨 넣는것을 보고 있으면 절로 감탄을 하게됩니다.

보성강변을 주위에 대나무가 많아 이런 작품들도 탄생 할 수 있었겠죠

이곳 곡성의 낙죽장도장에서 ‘낙죽장도’를 만드시는 한상봉 명인이 계십니다

한상봉 명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60호인 한병문 선생의 전수자이기도 한데요,

그럼 낙죽장도에 대한 얘기를 문화관광해설사님께 들어볼까요?

*“낙죽장도란 삼국시대 때 백제인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비수'라는 칼에서 유래했습니다. 길이가 한 뼘 정도에 불과한 장도는 낙죽장도와 일반장도로 나뉩니다.*

*장도는 사대부들과 부녀자들이 생활용과 호신용으로 두루 사용했습니다.*

*낙죽장도는 행운의 숫자를 뜻하는 일곱 마디의 대나무와 먹감나무, 소나무, 소다리뻐, 송진 금, 은 등을 이용하여 칼과 칼자루를 만듭니다. 칼을 끼우는 칼집 또한 대나무를 이용하는데 대나무 표면에 인두로 그림이나 글씨를 아로새겨 넣습니다.*

*매화와 난초, 국화 등 사군자와 명문장과 한시를 깨알같이 새겨 넣은 낙죽장도는 옛 선비들과 문인들이 즐겼던 풍류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낙죽장도의 종류로는 일편도, 경인도, 칠성죽장검, 칠성죽장도, 낙죽필성좌장검, 낙죽금장도 등 다양합니다*

*낙죽장도의 명인이신 한병문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한기동 어른으로부터 낙죽장도의 전통 기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한동안 힘겨운 생활고 때문에 잠시 그 일을 접기도 했지만 전통을 고수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낙죽장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 팔순의 고령에 이르렀기에 아드님인 한상봉 선생님이 낙죽장도의 전통기법을 전수받아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낙죽장도. 장인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귀한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장도를 만드는 장인들의 활약이 꾸준히 이어지는 데 반해 우리는 아직 전통문화 전수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편이죠.

낙죽장도의 전통도 한 때 사라질 뻔 했었다가 지금은 다시 살아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명맥이 꾸준히 이어져 지역을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할 유산으로서도 확실히 인정 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9. 대항강 자연휴식공원

처음 이 길을 나설 때 보성강을 대항강이라고도 한다고 말씀 드렸었죠?

대항강은 옛날에 불리던 이름인데요, 보성군 웅치면에서부터 곡성군 압록까지 흐르는 이 강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죠.

물이 맑고 어종이 풍부하여 이 일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성행했는데 특히 여름밤에 햇불을 크게 밝히고 그 빛으로 고기를 잡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그것을 '대항어화'라 해서 곡성팔경 중 하나로 꼽습니다.

여름밤 환히 밝혀진 햇불과 불이 비치는 물결, 그리고 불빛을 보고 물위로 오르는 물고기들. 그 광경이 정말 대단하겠죠?

이제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느껴보려 합니다.

곡성군의 중심에 자리한 대항강 자연휴식공원에서요.

이곳은 인위적인 느낌이 거의 없는 진짜 자연휴식공간입니다.

오토캠핑장은 물론이고 체육시설도 마련돼 있는 이곳은 계절별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책로가 흥미롭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갈대가 견고 싶도록 만들어주는데요, 가을엔 이 길을 따라 축제가 열려 주민들은 물론이고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도 여유로운 삶을 선사하죠.

특히 이 근처는 돼지석쇠구이가 유명합니다.

원래는 이곳 주변에 유명한 여관 겸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의 돼지석쇠구이가 워낙 유명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모여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 돼지석쇠구이가 이곳의 명물이 되었죠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그 지역의 별미도 먹어보는 것인데 대항강 생태탐방길에 오셨으니, '돼지석쇠구이' 어떠신가요?

이미 코끝에 매달린 구이의 진한 향기가 느껴지시죠?

보성강을 따라 변화하는 사계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대항강 생태탐방길에서 곡성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